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311 | JUNE 2023



1845년 출생
1879년 7월 4일
사망

李巴巴拉 바로바라 聖人

2023.06.15 목요일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3년 6월호 / 통권 311호

발행일 2023년 6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3©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11 | JUN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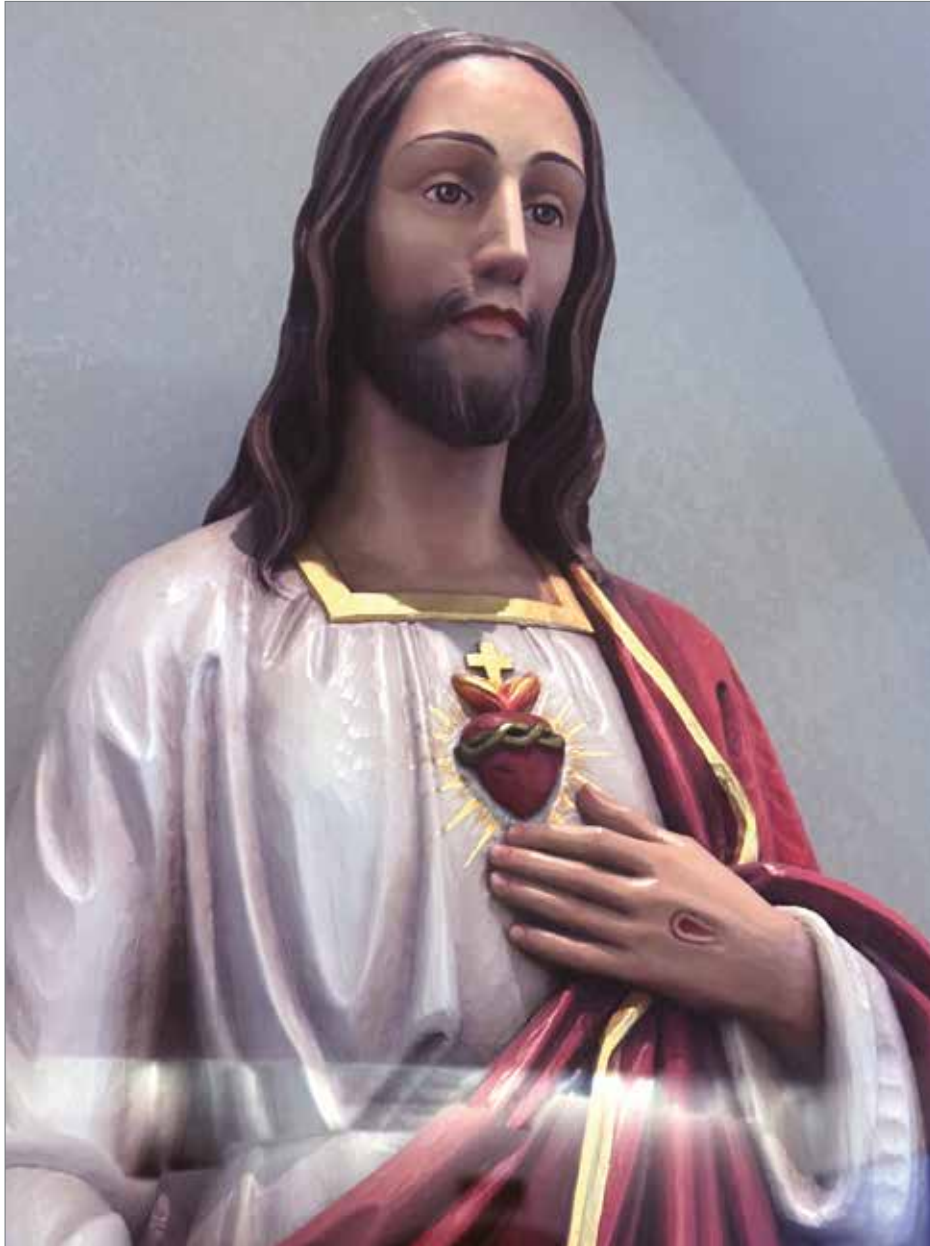
렌즈로 보는 세상	4
함께 읽는 성경	6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교회의 가르침	10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4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20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4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8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30 신앙의 기쁨
듣다 읽다 보다	32 고전 음악을 듣다 38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42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8 정석의 이 도시 52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직장사목팀 소식	58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THE COVER

성녀 이 바르바라

그린이: 정도운 엘리야(<http://artist-jdw.com>)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진심 어린 공경을 표하며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 봅니다.”

/
윤정민 마틸다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창세기 공부(1장~5장)

창세기(創世記)란 글자 그대로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 우리의 뿌리,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쓰여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스스로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인간의 시작은 언제, 어떻게 시작 되었을까?’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통찰할 때 ‘도대체 왜 악이 이처럼 성행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도처에 악인이 있는데 그들은 편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법대로 양심대로 살면 바보 취급 받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선민이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고난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통찰하다가 바로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책, 나에 관한 책, 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1,1).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1,3).

하느님께서 어떤 도구가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 하십니다. 말씀으로써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았다”하신 말씀은 하느님께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진(眞), 선(善), 미(美)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때에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2,7).

숨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숨’이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숨을 인간에게 불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생기, 살 수 있는 힘, 살아가는 영적인 힘, 혼을 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하느님의 반응도 들을 수 있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 창조사업의 협조자로서, 협력자로서, 관리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하느님의 뜻에 협조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사업이라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읽고 아래의 문제를 답해주세요.

- 하느님은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나요?(1,26)
- 사람이 하느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① 육체 ② 영 ③ 능력 ④ 형체
- 하느님께서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나요?(2,7)
-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나요?(2,8)
- 에덴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두 종류는 각각 무엇인가요?(2,9)
- 에덴동산에 있던 4개의 강 이름은 무엇인가요?(2,10-14)
- 하느님이 여자를 만들어 사람에게 데려오자 그가 한 말은 무엇인가요?(2,23)
- 뱀이 유혹을 할 때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3,4-5)
- 하느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형벌은 무엇인가요? (3,14-15)
-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에게 내린 하느님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3,16)
- 사람에게 내린 형벌은 무엇인가요? (3,17-19)
- 사람은 여자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나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3,20)
- 사람이 하와와 결혼하여 얻은 아들들의 이름과 직업은 무엇인가요?(4,1-2)
- 카인과 아벨이 주님께 바친 제물은 각각 무엇인가요?(4,3-4)
- 아벨과 카인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카인은 왜 화가 났고 주님은 카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4,4-7)

- 카인은 동생에게 어떤일을 저질렀나요? (4,8)
-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주님은 무어라 질문하셨나요? 카인은 어떻게 답했나요?(4,9)
- 카인이 아들의 이름으로 받은 성의 이름은? (4,17)
- 아담이 백삼십 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5,3)
- 아담의 후손 중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진 이는 누구인가요?(5,24)

다음 성서 구절을 직접 써보세요.

- 창세기 1장 1절
- 창세기 1장 3절
- 창세기 2장 7절
- 창세기 3장 15절
- 창세기 4장 10절
- 창세기 5장 24절

다음을 묵상하고 실제로 영적 일기를 써 보세요.

- 1)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뱀의 유혹 과정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 3) 창세기의 어떤 성서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병자성사, 치유와 회복의 성사

왕태연 요셉 신부_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질병의 고통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이 언제 닥칠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01항도 인간이 겪는 질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번뇌로 이끌기도 하고, 자신 안에 도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하느님께 대한 실망과 반항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질병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그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본질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질병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겪는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대해 선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외롭고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병자성사를 통해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결코 그 고통 속

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은총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그 위로의 은총에 내포되어있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한 참되고 진실한 이해’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겪는 질병의 고통을 동정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극심한 고통과 죽음 또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통과 두려움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미지(未知)의 영역이자 두려움의 영역이기도 한 죽음에 있어서도 가톨릭 교회는 병자성사를 통해 극도의 공포와 외로움의 순간이라고 하는 죽음의 순간

에도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죽음을 가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죽음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인간이 겪는 그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의 순간에 진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의심을 품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09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가 변화하였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유로이 순명함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이들을 고쳐 주는 권한을 주시고 그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

씀대로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마르 6,13)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증언에 따라, 병자성사에 있어서의 ‘도유(塗油)’는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사로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병자성사에 있어서 종부성사 즉, “마지막 도유”라는 의미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병자성사를 죽기 전에 한 번 받는 성사로 생각하였지만, 사실 병자성사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위한 성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린 신자나 고령의 노쇠함으로 죽음의 위험이 예상되면 언제든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15항도 병자성사를 받는 때에 대해서는 “병자성사를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가 다시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이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으로 앓다가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에도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성사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

입니다. 급격히 쇠약해지는 노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자성사를 미루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을 미루는 것은 병자에게도, 병자를 간호하는 이들에게도 결코 유익한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안타깝게도 병자성사를 받는 것이 삶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체념하듯 죽음을 받아들이는 의미라고 생각하여, 병자성사를 받거나 또는 환자에게 권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병자성사는 죽음을 선고하는 성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둔 환자가 병자성사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완성’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성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할 이유 없이 사제에게 병자성사를 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자성사는 사제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

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 5,14~15)

병자성사를 베푸는 일이 사제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은 병자성사가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성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병자성사를 청하는 이들을 사제가 찾아가는 일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병자성사와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성사가 지니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환자가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참여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자성사를 받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자성사가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랑과 일치를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사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다른 일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자성사를 받드시 죽음과 연관 지어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미루거나 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



세례명 (라:Nomen Baptismatis, 영:Baptismal Name)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 때 받는 이름으로 언제부터 세례명을 붙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3세기 중엽 이후에 태어난 아기에게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나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의식 중에 사제(司祭)가 세례자의 이름을 부르는 관습이 생기면서, 교회는 세례자에게 성인(聖人)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치프리야노(200~258)는 수호성인으로서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모세를 언급하였습니다. 디오니시오(190~265)는 사도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던 당시 신자들의 관례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요한 크리소스토모(347~407) 성인과 암브로시오(339~397) 성인은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짓도록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는 시기는 초세기부터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처럼 일치된 형태는 5세기부터 나타납니다. 13세기 이래로 보편화되어 교회법에서도 이를 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명은 흔히 본명(本名)이라고도 하며, 세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태어남에 합당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고, 성서에 개인의 이름이 가지는 영적인 중요성이 여러 곳에서 강조되며 개인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소명(召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종교적인 중요성에 유의하여, 세례 때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택해, 일생 동안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 받으며 그 품행과 성덕(聖德)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신의 세례명으로 택한 수호 성인의 축일을 ‘영명 축일(靈名祝日)’이라고 하여 축하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56항에 『세례성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태 28,19) 베풀어진다. 세례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을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세례 때 받는다. 그것은 어떤 성인의 이름, 곧 자기의 주님께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 바친 한 제자의 이름일 수 있다. 수호성인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며 전구를 보장해 준다. ‘세례명’은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부모와 대부모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처: 가톨릭대사전]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⑧

낮설고 불편한 가르침 - 사회적 약자 최우선의 원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1. “길가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이들(사회적 약자)을 포용하거나 배제하는 그 결정이야말로 그 어떤 경제·정치·사회·종교 계획 사업이든 모두 그 계획 사업을 심판(審判)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69항; 92, 117, 162, 169항 참조). 이를 사회교리는 ‘사회적 약자 최우선의 원리’라고 합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이 사회적 약자를 ‘창조 질서(자연)’로까지 확장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정세를 놓고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바로 그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사회적 약자를 통해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셨고,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20). 그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물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使命)에 충실하여,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사람들과 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회가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가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괴로워하는 이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라고 고백한 까닭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1항).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교회의 쇄신(탈바꿈)을 권고한 「복음의 기쁨」의 제4장 ‘복음화의 사회 차원’에서 이 시대의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문제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문제에 집중합니다(185항 이하 참조). 또 회칙 「모든 형제들」은 이를 ‘보편적 혈육 관계(형제 관계)’와 ‘사회 정치 차원의 사랑(사회적 우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최우선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서로 결합하여 있으나 구별도 필요한 슬픔과 고뇌의 두 차원, 곧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소개해야겠습니다. 누구나 게으름이나 부주의, 또는 무책임이나 역량의 부족으로 슬픔과 고뇌의 처지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개인적인 차원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 수익만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 또는 억압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정치체제 때문에 개인과 집단이 슬픔과 고뇌의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를 사회 구조적 차원이라 합니다. 이 구별이 필요한 것은 슬픔과 고뇌의 형태와 규모, 그 원인 찾기와 해결책 마련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처럼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개별 행동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복잡한 외과적 수술까지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집단이 겪는 슬픔과 고뇌의 그 정도와 규모, 그 원인 찾기와 해결책 마련에 있어 사회 및 정치 차원의 접근도 필요 불가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낮설고 불편한’ 가르침이라 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개별 행동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만’을 이웃 사랑의 전부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2. 사회적 약자와 '사회 및 정치 차원의 사랑'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사회 및 정치 차원의 접근'은 오늘날 더욱 필요 불가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우들께 '낯설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은 '가난'에 관한 불충분한 이해, 또는 오해 때문일 것이라 짐작합니다.

우선 '가난'과 '경제'의 우리말 뜻을 소개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난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 경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과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통치라고 하고, 이는 정치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관계'는 정치, 경제-사회, 문화 차원의 모든 인간 활동을 통칭하는 '사회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사회적 관계'라는 성격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경제 관점으로만 '가난'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이들'은 그저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단(돈)이 없는 사람들 정도로, 또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만족스럽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정도로 여기는 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사회적 관계'라는 차원을 포함하여 '가난'을 이해한다면,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무력(無力)과 문화적 소외 따위는 분리 불가하며 서로 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이 품은 뜻도 자유롭게 펼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심지어 편안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에 참여하기도 힘듭니다. 이를 간단히 경제적 빈

곤, 정치적 무력, 문화적 소외, 종교적 차별이라고 하며, 이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용어가 바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를 사랑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수준과 차원과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선 그의 '생계'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차원'의 접근도 요구된다는 데에서 그 차이가 생깁니다. 이를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주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누군가 어떤 노인을 도와 강을 건너게 한다면, 그것은 카리타스(사랑)의 멋진 행위일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인이 다리를 짓는다면, 그것도 카리타스의 행위일 것입니다.” 교황은 노인을 도와 강을 건너게 하는 개별적인 행위의 사랑을 '흘러나온 것'이라 하고, 다리를 짓는 사회 및 정치 차원의 행위를 '명령을 받은 사랑'이라 구별합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을 격려하여 더 건전한 제도들, 더 정의로운 규정들, 더 지지(支持)가 되는 구조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행위들로 표현됩니다”(「모든 형제들」, 186항).

3. 보조성(補助性, subsidiarity)의 원리와 사회 정치 차원의 사랑

'보조성'에 관해, 부모의 양육 방식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것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기 때는 밥을 떠 먹여주지만, 자라면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자녀도 때가 되면 도움(보조) 없이 먹고 싶어 합니다. 생활 전 영역에서 그렇게 무상(無償)의 호혜 과정을 거쳐 부모도 자녀도 자립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립이 말 그대로

의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삶)은 첫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상호인격적 관계 맺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회’ 차원과 단위들에 확장·적용한 것을 보조성이라 할 수 있으며, 교회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인간 존엄과 공동선의 실현)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간추린 사회교리」 186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3항 참조).

‘더 작음’과 ‘더 큰’은 상대적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예로 들면, 동(洞), 구(區), 시(市)와 군(郡), 도(道), 국(國)이 있는데, 그 힘(행정력)의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세계 공동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실효적으로 구속력(拘束力)을 발휘하는 가장 큰 상위의 집단(사회)은 ‘국가’입니다.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우리는 ‘세계 공동체’를 생각하며, 예를 들어 UN을 떠올릴 수 있지만, 경험하듯이, UN은 아직 국가만큼 실효적 구속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성은 상위 집단이 지닌 힘(권력)은 어디까지나 하위집단이 그 기능이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만 돕기 위해 행사(개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권력 행사의 제한’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위집단 쪽에서는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그 기능이나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임의로 그 책무를 상위 집단에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일종의 ‘자율(自律) 및 책임’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사회생활에 있어 극단적인 ‘전체주의(全體主義)’나 ‘자유주의(自由主義)’의 행태를 경계하

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선성’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한 사회 내의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곧 그 개입과 자율의 분야 및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consensus)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하는 심각한 사회 현안들 가운데 하나는 심각한 부의 불균형(양극화), 정직하게는, ‘빈곤의 세계화’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창의와 책임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문제를 ‘개별적인 사랑의 행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더 큰 상위 집단의 개입’, 즉 오늘날의 경우, 국가 또는 세계 차원의 ‘보조(도움) 의무와 책임(사회 정치 차원의 사랑)’이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포천의 그 아들과 그 아버지
홍교만(洪敎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738-1801)와
홍인(洪鎭, 레오, 1758-1802) 순교복자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포천과 관련된 두 분의 순교 복자를 소개합니다. 부자(父子) 사이였던 홍교만과 홍인입니다.

포천에 근거지를 두었던 순교복자 홍교만은 정약종과 함께 공식적인 신유박해(1801)의 첫 순교자 그룹에 속합니다. 박해 말기에 순교한 홍인 레오 복자는 그의 아들이었고, 정철상 가롤로 복자는 그의 사위가 됩니다. 서울 양반 출신인 홍교만은 포천으로 이주해 살면서 1777년 진사시에 합격합니다. 양근의 권일신의 집을 왕래하면서 천주교에 대해 들었으나, 그의 아들 홍인이 먼저 입교하였고, 그 아들의 권면으로 입교하여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미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홍교만은 비신자들과의 교제를 멀리 하면서 교리를 깊이 연구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하였습니다. 박해(1801)의 조짐이 보이자, 그는 아들과 함께 피신하였다가,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붙잡히게

됩니다. 복자 홍교만의 뛰어난 덕행과 신앙은 그의 심문 기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추국: 첫 번째 추국에서 조정에서는 압수한 물건이 예수 화상을 비롯하여 천주교에서 쓰는 물건과 서적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추궁하였습니다. 홍교만은 “저희 집에서 압수당한 문서는 과연 저의 책자입니다만, 그것이 사학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합니다.

추국에서는 계속해서 천주교 서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물었는데, 홍교만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 학문을 그르다(邪)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학문은 무릇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敬天畏天) 것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 어찌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홍교만은 연루된 천주교인을 고발하라고 추

궁받았지만, 정약종 이외에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종은 이미 체포된 상태이고 자신과는 사돈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추국: 이튿날 다시 추국이 열립니다. 조정에서는 계속해서 홍교만의 집에서 나온 문서가 누구의 것이며, 도당의 소굴이 어디인지를 밝히라고 추궁받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천지는 곧 큰 부모(大父母)이니 큰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는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 앞서의 공초에서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홍교만은 양반으로서 유교의 가르침에서 평생을 배우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천주교의 가르침이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유교와 상통하고, 충효 사상의 근본이 큰 임금 큰 부모(大君大父母)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었던 인물입니다. 이 이튿날 추국에서 심문자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끝내 이 학문이 그릇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에 대해 홍교만은 자신이 이해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유교사상 안에서 풀어냅니다. “도리의 큰 근본은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고, 또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이르고, 또 오직 상제께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성품을 내리신다 하여 함께 하늘을 공경하라는 뜻을 내렸으니 어찌 이를 사학이라고 하겠습니까?(道之大原出於天 又天命之謂性 又惟上帝降衷于下民 同出敬天之意 豈何謂之邪學乎)” 유교에서 천(天)은 때때로 도리, 근원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만물의 도덕적 원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천주(天主)는 곧 유교의 천(天)사상과 같으므로, 홍교만은 천주교의 도리가 하늘(天)에서 나온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중용(中庸)의 첫 대목을 인용하고, 동시에 서경(書經)에 나오는 상제(上帝)의 인격적 모습을 인용하여, 천주교의 가르침이 유교의 경천(敬天) 사상과 같으니 그릇된 학문(邪學)이라고 할 수 없음을 단언합니다. 이날 홍교만은 곤장 20도를 맞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추국 : 5일 후에 다시 추국 문초를 받습니다. 이날 추국 역시 천주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특히 예수의 강생에 대한 이야기는 유교 경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교만은 ‘예수강생설’이 유교의 성현이 밝히지 못했지만, 자신이 본 책에 분명히 나타나고, 그것은 유교의 이치와도 합치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가르침이 결코 그릇되지 않았다고, 곧 사학(邪學)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제가 이 학문을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공부하면서 비로소 얻은 것을 이제 어찌 한마디의 말로써 억지로 뉘우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강생한 예수를 알고 있으니 이제 갑자기 뉘우쳐 ‘예수가 그르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교만은 무엇을 체험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는 책 속에서 진리를 만났고, 책 속에서 복음과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강생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추국 재판을 거쳐서 홍교만은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의 아들 홍인(洪鎭) 레오(1758-1802)는 부

친에게서 교리를 들었는데, 오히려 부친보다 먼저 천주교 신앙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하고 침착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자 아버지와 함께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례하기도 했습니다. 냉담자들에게 권면하는 일을 잘 해냈으며, 가난 중에 살면서도 인내하고 어려움을 감당해 낼 줄 알았습니다. 1801년 박해 때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었지만, 아버지는 서울로 인도되었고, 자신은 고향인 포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3, 4일 간격으로 많은 심문을 받으며 견디어 냈고, 경기 감영을 거쳐 포도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홍 레오는 심문 과정에서 황사영 알렉시오와 홍익만 안토니오 등과 교류를 했으며, 주문모 신부와 함께 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 황사영을 알게 된 것은 그의 삼촌인 황석필과 전부터 이미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 홍익만은 저의 서오촌(庶五村) 숙부인데, 본디 양근에 살다가 10년 전에 상경하여 살았습니다. 그도 역시 사학에 미혹되어 저의 부자와 함께 여러 차례 주문모가 참례하던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체포령이 내려진 이후 각자 흩어졌으므로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밖에 다시 더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

홍인은 천주교 교리를 듣자마다 그것을 진리로 알아듣고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선한 성품

과 인내는 심문을 받는데 진가를 발휘했고, 포천 법정과 포도청 법정 등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홍인에게 사형 선고문이 내려집니다.

“너는 사학에 깊이 빠져 오랫동안 미혹되었다. 아버지는 전해 주고 아들은 배웠으며, 미혹되어 고집하며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경기 감영에 체포되었다가 포도청으로 이감되었다. 뿐만 아니라 너의 5촌 숙부 홍익만과 연결되었고, 흉악한 역적 황사영과 체결하여 작당해 뒤엎혀서 세상의 지목을 받았다. 그러한 즉, 너의 죄상은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 우리는 조정의 기록과 교회의 기록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조선관청의 기록은 천주교인을 사악한 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고, 교회의 기록은 영광스러운 순교자

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록을 균형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기록은 모두 홍교만과 홍인의 굳센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인은 사형 판결을 받고 고향 포천으로 이송되어 참수형으로 사형을 받았으니,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 12. 27)로, 당시 그의 나이는 44세였습니다.

다블뤼 주교가 남긴 홍인 순교자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큰 광채가 그의 시신을 에워싸서 그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였고, 특히 포졸들은 끊임없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를 되뇌었다.” (조선 순교사 비망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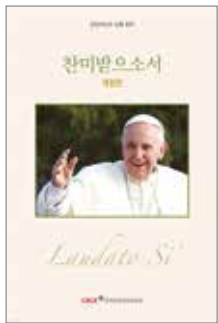
묵상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복자와 같이 나도 “강생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소”라고 증언할 수 있는가? 홍인 레오처럼 복음의 말씀, 천주교의 가르침을 듣고, 즉시 믿고 실천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새로운 생활 양식을 향하여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이번 달부터는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마지막 장인 제6장을 여행하게 됩니다. 회칙의 5장이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대화를 촉구한다면, 6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에 바탕을 둔 생태적 투신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회칙은 먼저 오늘날 생활 양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제안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주의

미국의 예술가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를 풍자하는 이 말처럼, 우리는 소비지상주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품 판매를 위하여 광고를 통해 우리가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과잉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회칙도 오늘날 우리의 생활 양식이 “강박적/집착적 소비주의”(203항)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헛된 목적을 위한 수단들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203항).

그렇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바라도록 조장하는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인간은 외적인 것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을 얻고 늘어가는 것에 있다고 그려지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돌보는데 소홀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치 소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구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역할을 망각하고, 소비주의의 “쓰고 버리는 논리”(123항)에 길들여지게 된 것이지요. 회칙은 “마음이 공허할수록, 사람들은 구매하고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을 더욱 필요로”(204항)한다고 주장하는데, 현대인은 그런 내적 공허함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지향적 생활 양식에 대한 집착”(204항)은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서로를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대량 폐기’가 늘어가고, 그 결과 지구는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소비를 위해 다른 생명체들이 시장의 상품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다른 존재들의 고유한 가치는 무시되고 상품의 가치로만 여기는 풍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끝없는 소비를 위한 물질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생활에 편리함과 넉넉함을 가져다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 양식의 변화

회칙은 오늘날 소비주의 문화를 통해 야기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것을 자행할 수 있지만, 또한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정신적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여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시 선을 선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5항).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성찰하고 참된 자유와 지구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길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에 응답하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중심성과 자아도취를 거부하는 자기 초월의 근본 자세”(208항)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생활 양식은 단순히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느님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자기 의식적 실천들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타자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격체로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의 본질적 가치”를 깨닫고,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며, “주변의 고통이나 환경 악화를 막으려는 절제”(208항)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이지 않을까요?

한편, 우리의 변화된 생활 양식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전한 압력”(206항)으로 작용하여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운동은 생태적 문제를 야기하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거부함으로써 기업의 행태를 바꾸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압력이 기업의 이윤에 손실을 입히면, 그 기업은 환경에 끼칠 영향과 생산 모형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만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206항)은 무게감이 있고, 이런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구매는 단순히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도덕적인 행위”(206항)라고 강조하십니다.

작은 일상적 행동

오늘날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조금만 더 의식을 갖고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거절하고, 과대 포장 없는 상품과 푸드 마일리지 가 적은 식료품을 선택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하려는 노력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생활 양식”(208항)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걸음이 모여서 숲속에 오솔길이 만들어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일상적 행동이 모이면 언젠가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큰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회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노력은, 때로 눈에 잘 띄이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212항). 이처럼 우리는 작은 생태적 실천이 가진 가능성, 선한 영향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거나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바뀌나가자는 것이지요. ‘오늘을 조금 바꾸자’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시작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마당을 쓸었더니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녀 블란디나

St. Blandina (축일: 6월 2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작은형제회

우리가 흔히 요리를 맛볼 때 ‘밍밍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은 소금이나 후추 등, 기본적인 밑간이 전혀 되지 않은 음식을 두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워낙 각자가 각양각색의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밍밍한 맛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담백하고 맛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하고 더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며 더 풍요롭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부정적인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녀의 이름은 ‘블란디나’(Blandina)입니다. 이 이름의 어원은 본디 라틴어 블란두스(Blandus)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블란두스는 사전에 의하면, 매력적인(Charming), 즐겁게 하는(Pleasant), 친절한(Gentle), 매력적인(Attractive), 신비스러운 매력을 가진(Alluring)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란두스의 여성형 변화가 블



란디나이기에, 이 이름의 뜻은 어원적으로, ‘신비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친절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여인’이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성녀의 생애를 잠시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성녀 블란디나는 177년경 프랑스 리옹에서 있었던 박해 시절에 숨진 순교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당시 주교였던 성 폰시아노와 함께 순교한 인물입니다. 본디 노예 출신이었으나, 여주인이 신자였기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여주인과 함께 감옥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녀에게 온갖 고문이 가해지고 배교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절에 그리스도인에게 펼쳐진 박해의 수준은 상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24시간 내내 고문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문을 참지 못한 이들은 배교를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박해를 참아 견디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맹수의 공격으로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였으며, 온갖 모욕을 견뎌야 하였습니다. 마침내 블란디나 성녀는 칼에 찔려 숨지게 되었고, 불에 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하며 숨졌다고 합니다.

예수 성심의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는 이 6월에, 우리는 블란디나 성녀도 함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일편단심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피흘리고도 남으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봅시다. 그 신비스러운 매력을 지니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기쁘게, 친절하게, 그리고 더 깊이 초대하는 블란디나 성녀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진일보하여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들은 수치스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 성녀 블란디나 ☩

신앙의 기쁨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한국인이 스스로 평가한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조사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뒤에서 7번째다. 지난 2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회원국은 그리스(6.10점), 일본(6.09점), 폴란드(5.29점) 등이다.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79점), 덴마크(7.70점), 이스라엘(7.58점) 아이슬란드(7.56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유엔 '세계 행복보고서'를 보면, 2021년 한국 순위는 전체 146개국 중 59위였다. 행복 보고서가 처음 나온 2012년 한국 순위는 11위였으나, 2016년 이후 줄곧 50위권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2년 2만 400달러에서 2021년 3만 3000달러로 증가했다. 그 기간 행복 보고서의 한국 점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소득이 늘어도 시민의 행복은 늘지 않고 있다.

<<신문 2월 27일, 3월 8일 기사 중에서>

Question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마태오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최근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었던 사건(일, 만남, 사람 등)들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참행복은 아브라함 이후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한데 모으며 완성하고, 하늘 나라를 향하게 한다. 참행복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넣어 주신 행복에 대한 갈망에 부응한다.”

“참행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최종 목적을 가르쳐 준다. 그 목적은 하늘 나라, 하느님을 뵈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함,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자녀가 됨,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영원한 생명의 행복은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은총과 마찬가지로 참행복도 초자연적인 것이다.”

“참행복은 우리를 지상의 행복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 앞에 서게 한다. 참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천상 행복은 이 세상 재화를 하느님의 법에 맞게 쓰는 식별의 기준을 결정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25항-1729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시작과 끝 - 교향시 '죽음과 변용'과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관현악의 적절한 악기의 조합을 통하여 음악을 만드는 것을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이라고 하는데, 관현악이 오케스트라이므로 그 동사라서 '관현악 만들기' 또는 '관현악화(化)'라고 하겠지만, 절적인 어감의 우리 말 번역이 없어서 대개 '관현악(기)법'이라고 번역된다. 학문적으로는 음악사상 3대 관현악법의 대가로는 베를리오즈, 라벨,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꼽힌다. 바흐, 헨델의 바로크음악이나 모차르트, 베토벤의 고전파음악이 '관현악법'의 대작으로 뽑히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현재와 같이 개량된 다양한 악기가 없어 악기의 최대치를 뽑아낼 수 없었던 시대이었기 때문이리라. 음악사상 관현악의 귀재라 불리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가 1888년 시작하여 1889년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완성한 교향시 'Tod und Verklärung(죽음과 변용) Op.25'는 그의 천재적인 관현악 기법을 보여주는 초기의 작품이지만, 평생 그의 삶의 주제이기도 하였다. 그의 마지막은 죽기 1년전인 1948년, 역시 걸

출한 관현악을 반주로 평화로이 죽음을 준비하는 '네 개의 마지막 노래(Vier letzte Lieder)' 리트로서, 이를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그는 삶을 마감하였다.

어느 시대의 음악에서든지 '죽음'은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의 하나였지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죽음과 변용'은, '교향시'라는 새로운 장르에 발맞추어 탄생하였다. 알려진바로는 교향시의 선구자 프란츠 리스트의 교향시 '타소 - 비탄과 승리(Tasso - Lamento e trionfo), 1849-54, S.96'에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있다. 죽음의 승화라는 주제가기 때문에 마치 임사자의 체험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격조 높게 죽음의 의미를 음악으로 표현하여 당시 큰 반향을 얻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또 다른 교향시 '맥베스(Macbeth)'나 '돈후앙(Don Juan)'처럼 이미 알려진 문학적 소재에 곡을 붙인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 스스로 죽음에 대한 시적 관념(상상력)을 가지고 작곡

을 한 다음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멘토였던 친구 알렉산더 리터(Alexander Ritter)에게 '죽음과 변용'을 들려주며 곡에 어울리는 시를 의뢰하였다. 리터는 마이닝엔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작곡가였고 또한 시인이었던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조용한, 쓸쓸하고 고독한 밤이다. 그는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다."로 시작되는 리터의 시는 '죽음과 변용' 스코어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출판되었다. 이렇게 음악을 듣고나서 리터가 시를 썼으므로, 음악도 그 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환자가 누워있는 묘사를 한다. 누워있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의 운명' 동기로 드러난다. 바람 앞의 촛불 같은 마지막 숨결을 이어가는 사이사이 엄습해 오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현악기들이 무겁게 이끈다. 두 번째 부분은 죽음과의 투쟁인데, 병마에 지친 이를 죽음이 사정없이 잔인하게 흔들어 깨우는 낮은 음으로 그 처절함이 느껴지고, 힘찬 합주는 삶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쉬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승부의 대목을 명징한 금관의 선율이 정리해준다. 세 번째 부분은 병자는 죽음과의 격렬



Artist: Max Liebermann (1847-1935)
Portrait of Richard Strauss (1918, oil on canvas)
Dimensions: 116 cm X 92.5 cm



Strauss Alliance
Gewandhausorchester Leipzig, Boston Symphony Orchestra, Andris Nelsons
Yuja Wang, Yo-Yo Ma

Release Date: 6th May 2022
Catalogue No: 4862040
Label: Deutsche Grammophon
Length: 8 hours 31 minutes

한 투쟁중에 불현듯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회상한다. 사랑스럽고 우아한 선율로 짧지만 평화가 찾아오지만, 잠시 추억 속에 미소 짓던 그는 이내 다시금 죽음과의 투쟁에 나서고 결국 마지막 철뿔이 떨어진다. 육체는 산산조각 나고 세계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빠져든다. 네 번째의 종결부에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상상하는 사후 세계가 펼쳐진다. 리터의 시에서 마지막 대목은 이렇다. “... 하늘에서 그를 향해, 힘차게 울려온다. 그것은 그가 여기에서 동경하며 구하던, 그가 구하며 그리워하던 것이다.” 죽음 뒤에 펼쳐지는 피안의 세계는 어떠할까? 공포와 두려움, 암흑의 죽음은 부정되고, 앞서 등장했던 젊은 시절 회상의 동기가 다시 연주되면서 행복한 분위기를 전한다. 탐탐(tam-tam)의 신비로운 울림이 그 미지의 세계를 열어 보이고, 현악과 금관의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이 펼쳐진다. 죽음의 공포와 일상의 분주함은 모두 사라지고 평화로

우면서도 아름다움 그 자체만이 흘러넘치는 관념적 유토피아의 세계가 고요하게 펼쳐진다. 고통과 투쟁을 거친 ‘죽음’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용(變容)’되었다. 20대 젊음이 묘사하기에는 아직 이른 ‘죽음’의 문제를 슈트라우스는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용해 나갈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으로 아름답고 몽상적이면서도 평화와 회상이 교차하는 선율로 풀어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렇게 죽음을 승리로 보기 때문에,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처럼 c단조의 운명에서 시작하여 C장조의 승리로 끝을 내고 있다.

이 교향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자신의 지휘로 다음 해인 1890년 6월 아이제나흐(Eisenach)에서 초연되었다. ‘변용’이라는 제목은 신약성서 마태오 복음 17장에 기인한다. 변용이라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야곱, 요한 등 세 명

Renée Fleming-Four Last Songs
Richard Strauss: Songs & Arias
Münchner Philharmoniker, Christian Thielemann

Release Date: 8th Sep 2008
Catalogue No: 4780647
Label: Decca
Length: 55 minutes



의 사도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광휘의 모습으로 변한 그리스도 신성의 현현(顯現)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이다. 독일어 ‘Verklärung’을 직역한다면, ‘빛나게 함’이 되겠지만, 일상적인 밝기 또는 빛의 변화라기보다는, 다소 형이상학적 변화를 뜻하므로, ‘정화’ 또는 ‘변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죽음은 인간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행복한 변용을 말하던 25세의 젊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과연 어떠한 죽음으로 현세의 삶을 마감시키고 변용시켰을까? 뮌헨 출신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2차 세계대전으로 고향 바이에른지방은 잿더미가 되었고, 전후 슈트라우스는 친나치파로 몰려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명예는 실추되었다. 1945년 10월 그는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스위스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영국의 지휘자 토머스 비첨이 구원 활동을 벌였으나 무위에 그치고 있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지금까지 모차르트의 환생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꽃길만을 걸어왔지만, 이미 40년대 초에 들어 질병과 시대적인 불안과 전쟁의 광기에 휩싸여 그의 음악도 크게 변해있었다. 그의 마지막 오페라 ‘카프리치오(Capriccio) Op.84(1942)’에서는 언어와 음악의 패러독스를 보여주었고, 1945년 종전 직전에 작곡한 23대의 현악기를 위한 현악 합주곡 ‘메타모르포젠(Metamorphosen)’에서는 그 말뜻 자체가 ‘형체의 변성(변모)’이라는 뜻이지만, 과거의 희망적인 ‘죽음과 변용’과는 달리 시대적 광기로 인한 감성과 이성의 무기력을 통렬하게 보여주었다. 전쟁의 광기의 시대에 이렇게 불안감의 절정을 이루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은, 드디어 2차대전이 끝난 1946년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시인 아이헨도르프의 시 ‘저녁놀이(Im Abendrot)’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점차 평온하게 바뀌어 갔다. 그는 슈만과 볼프가 즐겨 가곡으로 만들었던 아이헨도르프의 시로부터 ‘죽음과 변용’을 썼던 젊은 날의 자기 자



Richard Strauss: Complete Operas [Limited Edition]
Various Artists

Release Date: February 3, 2014
Duration: 09:31:16

신을 발견한 것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원래부터 관현악의 귀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사실상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였다. 6살부터 무려 200여곡의 독일의 전통적 리트(피아노 반주)를 작곡했던 그는 1946년부터 조금씩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아이헨도르프의 시의 리트 스케치를 하였고, 이때 젊은 날에 작곡했던 교향시 ‘죽음과 변용’이라는 제목을 늘 악보 옆에 메모해두었다. 드디어 ‘저녁놀이’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여성 목소리를 위한 가곡으로 1948년 5월 6일 완성되었다. ‘저녁놀이’의 리트에는 고요한 마음의 평정, 과거의 회상, 죽음을 향한 준비가 복합적으로 섞여있었다. 1948년 6월에야 친나치 행위에 대한 의혹이 무혐의로 가려졌고, 그는 그다음 해인 1949년 5월에 스위스 망명생활을 끝내고 가리미슈의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무혐의가 밝혀진 1948년에도 계속 스위스에 머물렀던 그는, 계속해서 20세기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3개

의 시에 곡을 붙이고자 하였다. 1948년 5월 6일의 ‘저녁놀이’에 이어서, 7월 18일에 어둠에서 기다리는 밝은 봄의 수채화같은 ‘봄(Frühling)’, 8월 4일에는 평온하게 영혼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밤을 기다리는 ‘잠들기 전에(Beim Schlafengehen)’, 곧이어 9월 20일에는 사라져가는 여름을 그린 ‘9월(September)’도 완성하였다. 안타깝게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이 4개의 ‘오케스트라-리트’가 연주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 리트의 초연은 1950년 5월 22일 런던 로얄 앨버트 홀에서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의 지휘로 소프라노 키르스텐 플라그슈타트가 불렀는데, 이미 8개월 전 85세의 나이로 고향 바이에른의 가리미슈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오페라 가수 파울리네(소프라노, 1863-1950)가 타계한 지 9일 뒤에 이루어진 초연이었다. ‘네 개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출판업자가 사후에 붙인 이름이지만, 이 제

목에 의해 일종의 연가곡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 연속적으로 작곡한 4곡은 자신의 연극에 막을 내려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서로 내용적 연관성이 있고, 관현악 반주의 음악형식적으로도 휴고 볼프와 말러, 피츠너로 이어졌던 또 다른 위대한 독일 낭만주의 리트 전통을 이어가는 마지막 고별인사를 던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네 개의 마지막 노래’는 죽음에 대한 평화로운 준비이자 아름다움에 대한 담담한 고별이자 ‘아름다운 변용’이다. 아이헨도르프와 헤세의 간결하면서도 고양감 높은 시적 감흥을 통해 피어오르는 네 개의 노래는 아름다움으로 장식된 죽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황금빛 색채로 가득한 세기말적 빈의 모습을 클림트가 회화로 장식하였다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네 개의 마지막 노래’에서 매끄러운 멜로디와 광채가 나는 하모니로 마치 클림트적으로 회화적인 화려함을 보여주는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선보였다. 죽음을 애도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있는 ‘변용’으로 죽음을 아름다운 애도로 바꾸어준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과거 오페라 ‘살로메’에서 보여주었던 그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충격적인 효과를 모두 배제시키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요소들만을

선택하였지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타고난 오케스트라 음색에 대한 전지전능한 능력과 멜로디 라인의 간결함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전혀 없는 음악적 흡인력을 주게되었다. 결코 격동적인 대범함을 보여주지 않고 잔잔한 호수에서 조금씩 파동치는 물결처럼 시의 각 구절마다 조금씩 변화하며 점진적인 약동감과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미세한 변화는 ‘봄’과 ‘저녁놀이’에서 극치를 이룬다. 우리에게 시의 언어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면서, 죽음의 그림자 사이에서 잔잔하게 동요하는 마음이 그려진다. ‘잠들기 전에’에서는, 솔로 바이올린이 도약하고 점점 상승하는 소프라노와 함께 오케스트라가 상향 스케일을 밟아가면서 우리에게 흔히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극치’를 환기시켜준다. 그 극치의 끝에 펼쳐지는 코발트색 환상의 세계는 이미 현세를 초월한 ‘변용의 세계’이다. 여름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9월’에서 호른을 필두로 목관악기들이 보여주는 미소는 진초록의 잎들이 물기를 잃고 변색되는 ‘변용의 수용’이다. 그 미소는 죽음을 앞둔 슈트라우스의 작별인사이리라. 🎧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카인 혹은 아벨 ; 이니셰린의 뱀시(The Banshees of Inisherin, 2021)

정현영 요셉 신부_ 사목국 상설고해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뜰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뜰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창세 4,8)

두 남자가 아일랜드의 작은 섬에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구였고, 오후엔 거의 매일 마을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콜름이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파우릭은 벌어진 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멀어지려는 남자는 그들의 지난 시간을 “무의미한 수다”라고 했고 그것을 반복하기보다는 너무 빠른 시간을 붙잡아 “남은 시간은 사색하고 작곡하며 살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는 “즐겁고 평범한 수다”를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술집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오빠가

술집에 간 오후에 집안일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던 파우릭의 여동생 시오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콜름을 찾아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파우릭이 지루하고 자신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지루함을 돌자리가 없으며 “한줌의 평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일미사를 위해서 방문한 본당신부까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일을 언급하자 콜름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는 술집을 찾아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일 파우릭이 앞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다면 그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극단적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록 말은 안했지만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콜름은 “지적인 사람”, 파우릭은 “(술 마실 때를 빼면) 성격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파우릭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콜름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우릭은 예전에 보여주었던 콜름의 다정함이, 엄마의 다정함이, 자신의 다정함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고 했지만, 콜름은 영원히 남는 것은 음악, 그림, 시 같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파우릭이 지난밤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콜름은 그것조차 불편합니다. 결국 그는 파우릭의 집에 손가락 하나를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파우릭의 모습에 손가락 하나는 다섯 개가 됐고, 잘려서 던져진 손가락은 파우릭이 꿈쩍이도 아끼던 당나귀의 죽음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파우릭은 콜름의 집에 불을 지르고 결국 두 사람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이니셰린이라는 섬은 아주 작은 섬이지만 세상의 많은 어두운 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은 작은 주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가 그렇게 틀어졌어도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콜름은 그곳에서 음악가들과 어울려 바이올린을 켜고 노래를 부릅니다. 파우릭은 콜름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후에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름 없는 파우릭은 좀 쓸쓸해 보입니다. 좁은 섬이어서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콜름이 원하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항구에서 우체국과 잡화점을 겸하고 있는 가게의 여



이니셰린의 뱀시
(The Banshees of Inisherin), 2013
코미디, 드라마 | 아일랜드, 영국, 미국 | 114분



주인은 동네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소문을 듣는다는 구실로 파우릭을 잡아 놓고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시오반의 편지를 뜯어보기도 합니다. 섬의 유일한 경찰은 아들을 폭행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는 콜름과의 대화에서 본토에 가서 사형을 참관하게 됐는데, 그것이 흥미를 끄는 이유는 6실링의 보수에 공짜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누가 죽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주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섬으로 들어오는 사제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콜름에게는 끊임없이 좌절감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마도 콜름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오반은 본토로 떠난 후에 파우릭에게 보낸 편지에서 “쓸쓸함과 앙금과 외로움과 악의와 죽을 때까지 느끼게 흘러가는 시간”만 남은 곳이라고 이니세린을 정의합니다. 콜름도 이니세린의 삶을 “죽기만 기다리면서 혼자만 만족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콜름은 오랜 습관을 그만두기로 결심했고,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려고 합니다. 한편, 파우릭은 자신이 오랜 동안 함께 해왔고 좋았던 그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결을 달리

하고, 그것이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해서, 굳이 이런 과정과 결말을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콜름은 손가락과 집을 잃었고, 파우릭은 당나귀를 잃었으며, 여동생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은 아일랜드 내전에 관한 비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섬이지만 본토가 내전 중이라서 총성도 들리고 소식도 간간이 들려옵니다. 경찰이 지원 나가기로 한 본토의 사형은 자유국에 의해서 IRA 대원에게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전에 관한 이야기는 두 사람이 해변에서 하는 마지막 대화에서도 등장합니다. 콜름은 이를 정도 총성이 멈췄으니 내전도 끝나가는 것 같다고 하지만, 파우릭은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기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 비로소 두 사람은 화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저 총성이 잠시 멈췄을 뿐, 아일랜드의 내전이 종식됐다는 증거가 없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진정으로 화해했다기보다는 휴전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에 있는 뱀시(banshee)는 아일랜드 신화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여성으

로 마법사나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한 나이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호수에 빠져 죽은 도미닉(경찰의 아들)의 죽음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들을 지켜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그들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카인과 아벨은 한계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카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였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에 들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카인은 자신이 받아들여

지지 않음에 분노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아벨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벨이 받아들여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파우릭과 영원히 기억되고자 하는 콜름은 그 욕망이 강박으로 변하는 순간에 서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격정에 휘말렸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카인과 아벨의 모습에도 그 강박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우릭이 콜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내는 죽음의 그림자를 불러왔던 것처럼, 카인은 하느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아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카인과 아벨의 모습이 겹치는 것은 저 혼자만의 감상일 수 있겠으나,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저 비극 안에서 끝끝내 화해하지 못한 실타래를 조금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계약의 궤를 따라 - 실로, 예루살렘 성전산(1)

심연선 소화데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사마리아를 떠나 중앙 산악지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산지와 구릉들 사이로 아름답게 굽이치는 골짜기의 길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2천년 전 예수님 시대를 거슬러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 길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마을 사이의 길이라 긴장을 하고 있지만, 고즈넉한 정취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전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실로에 도착합니다.

현재의 실로(Shiloh)는 정착촌이고, 그 서쪽에 고대의 실로라고 추정되는 고고학 사이트가 있습니다. 텔 실로(Tel Shiloh)라고 부르는데,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멀지않은 곳에 여느 이스라엘 건물 외관처럼 돌로 된 벽으로 만들어진 매표소로 들어갑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분위기가 시골의 어느 작은 가게처럼 정겹게 느껴집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홀로그램 설명과 파노라마 영화 시간을 예약하고 사이트

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국립공원을 비롯한 고고학 유적지를 가보면 그림 및 안내표지판으로만 설명해 놓지 않고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이곳 실로에는 모든 이들의 입에서 탄성이 나오게 하는 홀로그램으로 성막을 아주 잘 표현하였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우와~”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설명이 한국말로 나오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로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요르단 강을 건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다음으로 성막을 치고 머무른 장소입니다. 에프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던 실로는 수도 역할을 했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 이곳에 계약의 궤가 있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산지에 있고, 가까이 스킴과 베텔 등 주요도시가 있으며, 해발 600미터정도 되고 비옥한 토양을 갖춘 그야말로 수도이기에 관창은 조건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눈 곳(여호 18,10)도 실로입니다. 그래서인지 입구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장식된 에פות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깃발이 큰 도로를 따라 세워져 있는데,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들이 왠지 모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이스라엘 군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이곳은 1838년 미국의 로빈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키르벳 세일룬’이라고 불렸던 지역을 추적하여 덴마크 고고학자들과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발굴되었는데 이 발굴 이전에는 예로니모 성인의 언급과 현재 요르단의 마다바 지역의 성당 바닥에 남겨진 모자이크 지도에만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다시 시작된 발굴에서 기원전 4세기 말의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이 나타났고, 그 비잔틴 시대부터 이곳을 성지순례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가서 주





↑ 성전산



↑ 실로 계약의 궤 홀로그램



↑ 실로 유적지

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곳 성막에 주님이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 역시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1사무 1) 사무엘은 사제 엘리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에벤 에제르-아펙에서의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계약의 궤를 빼앗기며 도읍의 역할을 했던 실로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시대와 비잔틴 시대에 마을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작은 마을로서 자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비디오가 실로의 고고학 유적지의 가장 높은 지역에 세워진 파노라마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역시 한국어로 더빙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심 팀나 광야에 있던 성막 모형처럼 성막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딱히 있지 않았고 성막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만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한나처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자매님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혹시 사무엘 같은 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옆 정착촌에 있는 로컬 식당에서 맛있는 파스타로 점심식사를 합니다. 역시 새로 생긴 정착촌은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음식 정결레법에 의해 요리된 음식들입니다. 계약의 궤가 머물렀던 실로를 떠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실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50km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예루살렘 전경 사진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황금돔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곳이며, 그리하여 이름이 성전산(Temple Mount)입니다. 주님의 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처음 지어졌지만,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인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즈루빠벨과 대사제 예수아와 함께 두 번째로 세웁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나중에 헤로데 대왕에 의해 증축됩니다. 장장 80년에 걸쳐 눈부시고 장엄하게 지어지는데, 7년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파괴가 됩니다. 이때 성전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파괴가 되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 중에 서쪽 벽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통곡의 벽’



↑ 실로 항공사진



↑ 알 아크사 모스크 내부



↑ 알 아크사 모스크

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그곳에서 승천했다고 하여 무슬림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1시간만 개방합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의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가야합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만나는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여기는 다른 검색대 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됩니다. 십자가, 성경책 등 종교행위를 위한 물건들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체로 순례할 때 몇 번 검색에 걸려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103위 성인 성화가

걸려서 보관소에 모셔놓고 온 기억이 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남쪽에 있는 분문(Dung Gate) 쪽에 있는데 통곡의 벽을 향한 큰 문 오른쪽으로 작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출구는 동쪽의 사자문 근처 또는 중앙의 십자가의 길 두 군데에만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그곳으로 다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 크게 잘못된 일도 없는데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 괜히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성전산 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알 아크사 모스크를 만납니다.

성전산 위에는 큰 건물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바위 위에 지어진 황금돔 사원이고, 다른 하나가 이 알 아크사 모스크입니다. 회색 돔으로 장식된 황금돔 남쪽에 위치한 이 건물은 비잔틴 시대 때에 성당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고 대대적으로 성지순례를 하며 곳곳에 기념성당들을 봉헌하는데, 이곳에는 루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있던 자리는 무너진 돌 잔해만 남겨두고 좀 떨어진 남쪽에 네아 교회(Nea Ekklesia)를 봉헌했습니다. 이후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메카, 메디나와 함께 무함마드와 관련된 성지로 바뀌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 시대 때의 돔은 은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후에 지진과 전쟁으로 파괴와 재건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알 아크사 모스크는 무슬림들의 예배를 보다 원활히 하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승천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로 바위 사원, 즉 황금돔 사원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난히 이 모스크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기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는 이슬람 신자만 들어갈 수 있기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타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

정석의 이 도시(1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키릴문자와 백조의 호수, 초고층의 욕망

정석 예로니모_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낮선 도시를 여행할 때 도로표지나 간판을 전혀 읽지 못할 때와 떠들떠들 읽을 수 있을 때의 여행 맛은 전혀 다르다. 그 나라 글자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알면 여행의 재미가 쏠쏠해진다. 중국에 가면 한자 간체자를, 일본에 가면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어야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도 얻고 여행도 편안해진다. 영어권 나라들은 영어를 쓰니 큰 어려움이 없는데, 러시아에 오니 키릴문자가 생소해 갑갑했다. 러시아 글자인 키릴문자는 영어 알파벳과 생김새는 거의 비슷한데, 같은 글자를 전혀 다르게 읽는 경우가 꽤 많다.

러시아 여행이 끝나갈 무렵 키릴문자 알파벳 발음 공부를 시작했다. 크게 어려울 것도 없다. 영어와 발음이 다른 키릴문자 몇 개만 구별해서 읽을 줄 알면 된다. 키릴어 'С'는 영어 'S'에 해당하고, 키릴어 'Р'는 영어 'R' 발음으로 읽으면 된다. 'N'자를 좌우로 뒤집은 키릴어는 영어 'И'이고, 'R'자를 뒤집은 키릴어는 영어 식으로는 'Ya' 발음으로 읽으면 되며, 숫자

'3'처럼 생긴 글자는 영어 'Z'에 해당한다. 하나 더 있다. 키릴어 'Н'는 영어 'N'에 해당한다. 발음에 주의할 키릴문자 몇 개를 외우고 건물에 붙은 간판들과 길가 안내표시들을 일부러 소리 내어 읽었다. '바(bar)', '레스토랑' 등등 비밀스럽던 글자들이 하나하나 읽혀지니 재미있다.

발트 3국과 러시아까지 이어진 긴 여행의 끝이 다가온다. 마지막 날, 상트와 아쉬운 이별의 시간을 조금 특별하게 보냈다. 배를 타고 네바강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여행을 마무리하는 날이어서인지 함께 여행했던 분들의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였다. 한 분 한 분 사진을 찍어드렸다. 도로 위를 걸을 때나 버스를 타고 시내를 구경할 때와는 달리, 강에서 배를 타고 도시를 바라볼 때의 느낌은 사뭇 달라진다. 눈 높이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배에서 바라보는 강변 풍경과 도시경관은 왠지 더 낭만적으로 다가온다.



↑ 바(bar), 레스토랑이라고 적힌 키릴문자 간판



↑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 보트투어 선착장



↑ 보트투어를 하며 즐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강변 풍경



↑ 토프스토노고프 볼쇼이 극장 내부 모습



↑ 발레 '백조의 호수' 커튼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초고층 라크타센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마지막 밤은 토프스토노고프 볼쇼이극장에서 발레 '백조의 호수'를 관람하는 것으로 마감했다. 입장권이 170유로나 되어 꽤 비쌌지만, 그만큼 값을 하기에 충분했다. 좌석이 무대 앞쪽이어서 연주하는 음악이 쿵쿵 가슴을 울렸고, 가볍게 숨을 쉬는 배우들의 눈빛을 보고 숨소리를 듣는 긴박감이 느껴졌다. 저녁 8시부터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장엄한 공연이었다. 발레단원 중에는 한국인처럼 보인 여성단원도 있었다. 지금은 중요한 배역은 아니지만 주연 역할을 하는 멋진 발레리나로 성장하라고 마음으로 응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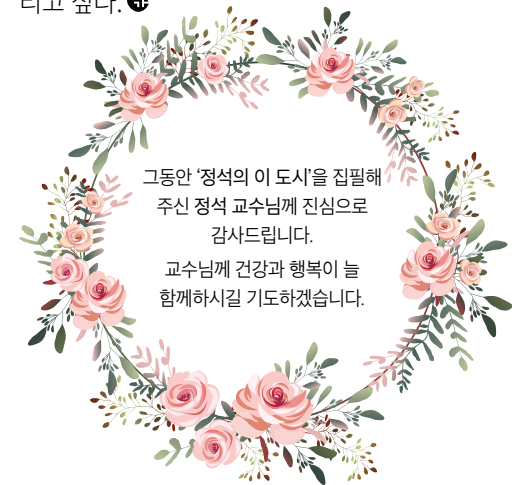
공연 관람을 마치고 호텔 1층 바에서 일행 몇이 맥주를 한잔씩 했다. 발트 3국 여행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을 되돌아보며 얘기를 나누다보니 시간이 훌쩍 갔다. 일행들이 먼저 일어난 뒤 혼자 남아서 몇 잔 더 마셨다. 정리할 게 있어서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았던 여러 풍경들 가운데 머릿속에 오래 각인된 장면이 어른거렸다. 시내를 오고 가며 여러 번 보았던 트위스트 깎다리, 초고층 건물 때문이었다. 초고층의 욕망은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상트 북쪽에 87층 462미터 높이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건물주는 러시아 가스 생산의 8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는 가스프롬사로, 2006년부터 상트 도심부 가까운 곳에 '오크타 센터(Okhta Center)'라는 이름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 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도 초고층 건설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반대 여론도 많았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부 전체가 1990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어, 세계유산 가까이에 초고층을 짓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고 유네스코의 경고까지 받았다. 경고를 무시하고 초고층 건설을 강행하려 했으나 시민 여론에 밀려 결국 건설을 포기했고, 도심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지금 이곳에 부지를 마련해 2012년부

터 '라크타 센터(Lakhta Center)' 초고층 건설이 시작되었다. 당초 2018년 여름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져 2018년 12월 31일 준공되었고, 2019년부터 가스프롬 본사가 입주하였다.

초고층에 대한 욕망은 중동지역과 아시아 몇몇 국가들에게서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을 보유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그래도 유럽은 초고층의 욕망이나 경쟁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도시 상트까지 초고층을 짓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다. 하나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지을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라크타 센터 옆에 703미터 높이의 라크타 센터 2호 건물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며 궁금해졌다. 라크타 센터 1호, 2호도 모두 비튼 형태인데, 이들 트위스트 깎다리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빛이 될까, 그늘이 될까?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떠나 12박 13일 동안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틱3국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둘러보았던 여행은 깊은 감동과 감탄을 내게 준 여행이었다.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고, 신심을 깊게 해준 순례였다. 모르던 나라에 와서 전에 하지 않던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준 뜻밖의 선물이었다. 초대해주고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발트 3국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께도 여행을 권해드리고 싶다. 🍷



그동안 '정석의 이 도시'를 집필해 주신 정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윤인복 소화테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우리 주변에서 안토니오 성인의 세례명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접할 수 있다. 성인 목록에서만도 열세분가량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성인 가운데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1월 17일)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6월 13일)는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의 대상이 되었다.

은수자의 아버지 성 안토니오

동서방을 통틀어 수도생활 창시자로 불리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St. Antonius, 또는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부유한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안토니오는 스무 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태 19, 21)라는 부자 청년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할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금욕적인 수도생활을 시작했다.

안토니오는 이집트의 고향 근처 산을 찾다니며 은수자의 지도를 받으며 독수 생활을 시작했다. 312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있는 빈 무덤 동굴에 거처하며 15년 동안 기도와 성서 읽기에 전념했으며 노동도 빼놓지 않았다. 그 후, 나일 강 끝에 위치한 피스피르(Pispir) 산 속 버려진 요새에서 혼자 살면서 은둔생활과 기도생활을 했다. 안토니오의 뛰어난 성덕과 기적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온 사람들의 집단이 여러 곳에 생겨났다. 이런 이유로 그는 수도생활의 창립자와 은수자의 수호성인으로 불린다.

사막은 성서적으로 하느님과 만나는 고요한 동경의 장소였지만, 마귀들의 서식지이기도 했다. 안토니오가 기도를 시작하면 온갖 맹수와 뱀의 환영이 그를 괴롭혔기에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며 악마와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악마는 멧돼지의 몸을 빌려 그에게 나타났지만, 기도로 그 악마를 쫓아내고 그 멧돼지를 길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는 종종 멧돼지를 동반하고 나타난다.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앙베르 학파, <성 안토니오의 유혹>, 1510년경, 코레르 시립미술관, 베네치아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의 도상(圖像)은 은수자의 옷을 입고 T자형 지팡이를 든 모습과 종을 들고 있거나 멧돼지를 데리고 있는 모습, 유혹을 받는 모습이다. 예술가들에게 가장 영감을 불어넣은 것은 성 안토니오의 금욕적이고 고행적인 삶 속에 나타난 악마의 유혹이었을 것이다. 악마는 많은 예술작품에서 기이한 모습과 형태의 생물체로 드러난다.

네덜란드 화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 1450년경~1516년)의 작품에서처럼 수도복 차림을 한 안토니오는 손에 십자가를 짊어진 채 기괴한 생명체로 가득한 공간에 앉아있다. 그의 앞에는 악마가 금으로 치장한 발가벗은 여인들이 그를 유혹하도록 이끌고 있다. 화가는 상상 속의 풍경에 최대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상한 생명체들을 통해 선과

악을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안토니오는 배경 가득히 메운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생명체의 무리 속에서 곳곳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또 다른 화가 다비트 테니르스(David Teniers il giovane, 1610-1690)의 작품에서도 온갖 기이한 모습의 동물과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한 악마는 금욕과 금식 생활을 하는 안토니오에게 음식으로 유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굳은 의지와 기도로 무장한 안토니오는 악마를 물리친다. 보쉬의 작품과는 달리 다비트 테니르스의 작품에서는 기괴한 생명체의 등장과 더불어 십자가상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정물이 눈에 띈다.

십자가상 앞에는 당시 17세기 북유럽 화가들이 정물화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



다비트 테니르스, <성 안토니오 아빠스의 유혹>, 1640년경, 루브르 박물관, 파리

tas)’는 바니타스를 상징하는 해골, 모래시계, 도자기 화병, 서책 등의 오브제가 놓여 있다. 이는 물질세계에 대한 반성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알레고리를 함축한 것이다. 바니타스 도상은 16~17세기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후에 유럽 전역에서 정물화 장르가 발전하며 출현했다. 정물화의 수많은 하위 장르 중에서도 바니타스 도상은 교훈적·종교적 의미로 인해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 재물의 축적 또는 현세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도덕 원칙을 따라 삶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복음적 요

구는 다양한 상징물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테면 시계·모래시계는 시간의 한정 과 소멸을, 서책·예술가의 도구인 붓, 팔레트, 이젤 등은 인간의 지적 한계 및 예술적 탐닉 의 덧없음을, 도자가로 된 병은 흘러가는 인 생의 덧없음을, 보석·거울·비단은 부귀영화 의 덧없음을, 꽃·악기·동전은 쾌락의 덧없음 을, 얼마 남지 않은 촛불, 날개를 편 나비는 존 재의 일시성을, 사람의 두개골은 피할 수 없 는 죽음을, 먼지는 모든 인간의 기원과 종말 을 나타냈다. 수도복을 입은 안토니오는 동굴에서 십자가



아드리안 판 유티레흐트, <해골과 꽃다발이 있는 바니타스 정물>, 1642년경, 개인 소장

에 매달린 예수님 상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 성 안토니오가 지닌 유일한 무기는 “십자성호와, 주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뿐”이었다. “항상 그리스도를 호흡하라”(『안토니오의 생애』 91, 3)

설교가 성 안토니오

파도바(Padova)의 성 안토니오(St. Antonio, 1195-1231)에 관해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그에게 기도하면 곧바로 물건을 찾는다 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안토니오의 책 을 훔쳐 달아났던 어떤 수련자가 안토니오의 기도로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달리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탈리아 방언으로 파두(padoue)는 포장도로(pave)를 말하는데, 또한 유실물을 의미하

기도 한다. 이러한 말장난 덕에 유실물 보관소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안토니오 성인은 ‘파도바의 안토니오’라는 호칭과는 달리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탈리아의 파도바는 그가 활동한 곳이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훌륭한 종교교육을 받고, 기사도 정신을 갖춘 청년으로 자란 그는 1210년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했다. 이후 모로코에서 다섯 명의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의 순교를 목격한 안토니오는 그들의 순교에 감동하여 1220년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사가 되었다. 안토니오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던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이탈리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다. 또한 아시시의 포르치운쿨라(Porzuncula)에서 작은형제회 총회 때 우연히 강



무리요, <아기예수와 함께 있는 성 안토니오>, 1668~1669년경, 세비야 미술관, 스페인

론하게 됨으로써, 그가 설교에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안토니오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설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의 놀라운 화술과 설득력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그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 정도였다. 그는 가난과 참회에 대해 설교하며, 가난한 이들의 수호성인답게 방종한 부자들을 꾸짖고,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했고, 이단자를 개종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일반적으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사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불타는 심장이 묘사되거나 정결의 상징인 백합이나 그가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다는 의미인 책과 그 위에 앉은 아기 예수가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제들 가운데 가장 많이 표현되는 도상은 안토니오가 동정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환시로 체험한 이야기이다. 프란치스코 수도복과 세 개의 매듭이 있는 띠를 착용한 성인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7세기 스페인 회화의 황금 시기를 대표하는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Bartolomé Esteban Murillo, 1617-1682)의 작품처럼, 프란치스코 수도복장을 한 안토니오는 한 손에 정결의 상징인 백합을 들고 성경책 위에 앉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다. 화가 무리요는 일상생활의 장면이나 풍속을 강조한 작품과 그의 생애 절반을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가까이 하며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종교화를 많이 남겼다. 풍부하고 서정적인 종교적 색채가 짙은 그의 작품 속에서 이상화된 아름다움과 감성적인 인간미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안토니오가 허리를 숙여 아기 예수를 안으려는 모습 같지만, 오히려 양팔을 벌린 아기 예수가 안토니오를 자신의 가슴에 품으려하는 사랑스러움이 더 강하게 보인다.



필리포 아비아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와 노새의 기적>, 1710년경, 교구박물관, 밀라노

더욱이 안토니오는 ‘기적의 성인’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기적을 보였다. 이 까닭에 화가들은 그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주제로 등장시키곤 한다. 예컨대, 안토니오가 소년의 절단된 다리를 회복시켜 주거나, 성체 앞에서 서 있는 노새의 무릎을 꿇게 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안토니오가 물고기들에게 설교하니 물고기들이 줄을 지어 서서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모습도 그려진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활동한 화가 필리포 아비아티(Filippo Abbiati, 1640-1715)는 안토니오가 노새에게 성찬식을 베풀고 있는 이야기를

묘사했다. 이교도인 노새 주인이 성체가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흘 동안 굶은 노새에게 성체를 주었더니, 노새는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준비된 먹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안토니오는 손에 성체를 모시고 있고, 노새 주인은 그릇에 담긴 먹이를 먹이려 하나, 노새는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고 있다. 노새는 오랫동안 굶은 뒤라 당연히 먹이를 먹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그의 기적은 설교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생애 마지막까지 “강론집”을 저술하다가 1231년 6월 13일에 수종병을 얻고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 해에 성인품에 올려졌고, 1946년에는 교회박사로 선포되었다.

“오! 사랑하올 천상 의사이신 성 안토니오여, 무수한 병자들이 당신의 전달로 건강을 회복하오니, 죄로 상처받은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약한 경향을 바르게 하소서.”(성 안토니오께 드리는 13일 기도 중)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 연습/미사: 매주(금) 19:30/둘째(금) 20:00,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단장 010-5760-6638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기꺼이 따스한 한 끼를 드릴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 해주세요.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 전화 02-774-3488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mdbj.or.kr)





Baptism ['bap-, ti-zəm]

a Christian sacrament marked by ritual use of water and admitting the recipient to the Christian community

First Known Use 14th century, in the meaning defined at sense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